

사회

아파트 하자보수 거액 소송 봇물

광주, 수십억대 잇단 제기... 10여곳 준비중

분쟁 장기화·브로커 개입 부작용도

광주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거액의 하자보수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과거 불만족 사례를 단순 민원으로 제기했던 것과는 달리 변호사나 하자보수업체 등과 사전 논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자보수 금액이 큰 경우 아파트 감정업체나 법률 브로커들이 주민들을 부추겨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A아파트 460여 세대 입주 주민들은 지난 3월 지하주차장 누수와 설계와 다른 시공, 조명 불량, 벽체 균열 등을 이유로 45억원의 하자보수 소송을 냈다.

아파트 주민들도 지하주차장 누수와 배수불량, 균열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12억원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2007년 입주를 시작한 북구 C아파트(600여세대)의 대형아파트 단지도 최근 전문가를 동원해 하자보수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20억원대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 광주시내 10여곳의 아파트 단지가 국토해양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나 하자분쟁을 신청하거나 아파트 값 하락 등에 따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한 임원은

“2009년 2억5000만원을 들여 안전진단업체를 통해 검사한 결과, 32억원 규모의 하자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명백한 증거가 있는 만큼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입주주민들이 적극적인 보상 요구에 나서고 있는 것은 현행 법률

(주택법시행령 제 59조) 상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보증 기한이 ▲도배 1년 ▲전기·설비 2년 등 3년 이내로, 이를 넘길 경우 보상금액이 대폭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잇단 소송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하자를 가려낼 정확한 심사기준과 하자보수에 따른 객관적 비용 책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분쟁이 지연되고, 다량의

장기화에 따른 주민 간 반목도 깊어질 수 있는 까닭이다.

한 변호사는 “앞으로 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더 신경 써 시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거액 소송의 경우 가구당 부담이 늘고 사설 감정업체들이 나서 주민들에게 소송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자동차 번호판 영치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전국 도시 다발로 진행되는 가운데, 12일 광주시 북구청 세무과 직원들이 용봉동 주택가에서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상습 빈집털이범 검거 북부경찰

광주 북부경찰은 12일 빈집 및 상가 등에 침입, 금품을 훔친 배모(33)씨를 상습절도(특가법) 혐의로 불잡아 조사 중이다.

배씨는 지난 3월1일 오전 9시께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사무실에 들어가 LCD TV 등 시가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나오는 등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13차례에 걸쳐 7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청소년 비행 아파트 주변 최다

광주경찰 112신고 분석... 음주·흡연 가장 많아

광주지역 청소년들은 아파트 주변이나 PC방 등에서 음주·흡연을 하는 등 비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이 올 들어 지난달까지 112신고 전화에 접수된 청소년 비행신고를 분석한 결과, 모두 651건이 접수됐으며 전체적으로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09년 548건에서 2010년 1877건, 지난해 2291건 등이 신고됐다.

비행 신고는 주로 학교와 학원이 끝나는 오후 2시~오후 6시(23%), 밤 10시~자정(20.3%) 시간대 아파트 주변(26.4%)에서 음주나 흡연하

는(41.5%)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비행 신고 내용에는 소란 행위(27.4%)·시비 다툼(16.3%) 등도 있었으며, 신고 장소는 아파트 주변에 이어 PC방 등 상가 주변(18.4%), 학교 주변(17.1%)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해 취약시간대 비행 다발신고장소에 112 순찰차와 기동대 등 병력을 집중배치할 예정이다. 또 심각한 비행행위가 적발될 경우 학교 및 학부모에 통보하고 쉼터 등 보호시설에 인계하기로 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9만원 할아버지’

얼른 잘못 고백 하세요

초등생 유승민 군 쓴 전두환 주제 詩 화제

〈우리 동네 사시는 29만원 할아버지/아빠랑 듣는 라디오에서는 맨날 29만원밖에/없다고 하시면서/어떻게 그렇게 큰 집에 사세요?/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셨으면 / 할아버지네 집 앞은/허락을 안 받으면 못 지나다니요?/해마다 5월18일이 되면/우리 동네 이야기가 나오는데/그것도 할아버지 때문인가요? /...왜 군인들에게 시민을 향해/총을 쏘라고 명령하셨어요?/...대답해 보세요!/29만원 할아버지〉

최근 ‘육사생도 사열’로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주제로 쓴 한 초등학생의 시(29만원 할아버지)가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이 시는 지난 5월 5·18 민주광장 서울기념사협의회가 주최한 ‘제8회 서울 청소년 문예공모전’에서 우수상(서울지방보훈청장상)을 수상한 유승민(서울 연희초 5학년)군의 작품.

이 시에서 유군은 ‘할아버지가 벌 받을까 두려워 그 많은 경찰 아저씨들이 지켜주는 것인가요?’라고 물으며 ‘얼른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비세요’라고 글을 맺는다.

기념사업회 관계자는 “초등학생이 시를 통해 이 사회와 전두환 씨에게 질문을 던지는 점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달 수상작 전시회 이후 갑작스런 관심과 격려가 쏟아지자 유군의 부모가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어른들보다 더 어른답다” “요즘 보기 드문 개념(?)시” “정말 초등학생이 쓴 시일까?”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임동욱기자 exian@kwangju.co.kr

나원침 (8586)



축사 불 한우 18마리 죽어

지난 11일 밤 11시36분 장성군 장성읍 부흥리 오모(62)씨의 한우 축사에서 불이나 축사를 모두 태우고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축사 231㎡가 전소해 한우 18마리가 연기에 질식사하거나 불에 타 죽어 소방서 추산 5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한성주 동영상’ 관련자 모두 기소 중지

○서울동부지검은 12일 방송인 한성주씨가 “전남 자친구 A씨가 인터넷에 음란 동영상을 유포했다”며 고소한 사건과 관련 불기소 처분하기로 최종 결정.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인터넷에 한성주 관련 동영상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영상 및 허위 사실을 게재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지만 A씨가 외국에 나가 있는 상태로 검찰 출석에 계속 불응하고 있어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는 것.

○검찰은 A씨가 “지난해 3월 한성주 가족 등에게 감금된 상태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수사를 잠정 중단.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금호고속 복수노조 집회 주도

민주노총 간부 실형

광주지법, 1년 6월 선고

광주지법 형사12단독 김중석 판사는 12일 금호고속 복수노조 문제로 인한 회사측과의 대립 과정에서, 폭력적인 집회를 주도해 경찰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국장 정모(48)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정씨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성산 금호고속 대표이사가 정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는 김 대표의 고소 취하로 공소기각됐다.

재판부는 “정씨는 통상적인 노조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노조원들의 참여를 독려한 점, 각종 구호를 외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불법 집회라고 판단된다”며 “사전에 사측 및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 상황에서 집회를 주도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공무를 집행중인 의경에게 상해를 입혀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민주노총 금호고속 노조가 복수노조로 출범한 뒤 사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자 같은 해 8월 광주시 서구 광천동 광주종합터미널 앞 광장 등지에서 불법집회를 열어 폭력사태를 야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어린이 집 업무방해 구의원

손해배상금 400만원 선고

광주지법 민사8단독 강동국 판사는 12일 이모(53)씨가 북구의회 의원 김모(47)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가 이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씨는 김씨가 지난 2010년 4월29일 오전 광주시 북구 모 어린이집에 찾아와 자신과 관련된 좋지 않은 내용을 언론사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욕을 하는 등 업무방해를 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상암로점(합동공회 상암로) : 022276-06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 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약) : 02733-0220 송파점(선릉역 2번 출구) : 02419-3388 경기 인천점(구 인천회관) : 032421-2288 부평점(부평역) : 032617-5110 수원점(남문) : 031246-5110 의정부점(의정부역) : 031821-6655 안양점(안양소방2001 아울렛) : 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 031658-5110 용인점(용인테크) : 031336-1090 오산점(오산역) : 031376-4183 부천점(부천역) : 032329-4400 남양주점(한해 호텔) : 0708229-9903 부산 서면점(서면역) : 051818-8800 서면점(서면역) : 051256-7200 울산 울주점(울주역) : 05228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 055297-6080 진주점(진주역) : 054859-2248 광주 광주점(구도동) : 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 : 062651-4477 전남 순천시점(순천시) : 061752-8845 전북 전주점(전주역) : 063322-5728 호남점(호남역) : 063446-0198 익산점(익산역) : 063638-5000 남원점(남원역) : 063632-2626 대전 대전점(도동) : 042254-5110 대전점(충훈로) : 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 042225-6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 041553-2898 광주점(광주문사거리) : 041852-5110 충북 청주점(한계동) : 043254-5110 충북 청주점(청주역) : 043254-5110 충북 청주점(청주역) : 043254-5110 충북 청주점(청주역) : 043254-5110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국제품질 인증 ISO 9001인증 국제의료기기 인증 ISO 13485인증 CE마크 인증 GMP인증 의료용기기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부문의전화 021538-9388